

# 기아차 '니로EV', 유럽 친환경 시장서 질주

### 英 '왓 카 어워즈'서 소형 전기차 본상

기아자동차가 유럽 친환경차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니로EV를 앞세워 환경 규제가 가장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는 유럽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기아차 니로 EV는 지난해 유럽 시장에서 2만7049대 판매되며 8위에 오르며 1년 만에 2계단 올랐다. 판매량은 전년(9509대)보다 184.5% 증가했다.

또한 유럽 현지에서 각종 상을 휩쓸며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기아차는 13일(현지시각) 영국의 저명한 자동차 상 '2021 왓 카 어워즈'에서 e-니로(한국명 니로 EV, 이하 니로 EV)가 '소형 전기차' 부문 본상(Winner)을 수상했다.

기아차는 ▲2018년 피칸토(올해의 시티카)가 수상을 한 데 이어 ▲2019년 니로 EV(올해의 차), 피칸토(올해의 시티카) ▲2020



기아차 e-니로 영국 왓 카 어워즈 본상 수상.

/기아자동차

년 피칸토(올해의 벨류 카) ▲2021년 쏠렌토(올해의 대형 SUV) 등 4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안았다. 니로 EV는 455km의 뛰어난 1회 충전시

주행 가능 거리(WLTP 기준)와 동급 최고 수준의 공간 활용성 등 최상의 상품성과 합리적인 가격을 갖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개미'와 증시



기지수첩

염재인 (파이낸스&마켓부)

'동학개미운동'을 펼친 개미(개인투자자)들의 '사자' 기조에 힘입어 국내 증시가 호황을 맞았지만, 최근 등락폭을 키우며 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개인투자자의 주식 사랑은 식을 줄 모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12일 기준 74조4559억원으로 사상 최대금액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30일(65조6234억원) 대비 13.46% 증가한 수치다. 1월 투자자예탁금 평균 금액(69조9080억원)도 지난해 평균인 46조6235억원을 가뿐히 넘겼다.

코스피는 1월 들어 6.92%의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다. 4일부터 12일까지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8조6764억원, 1219억원을 팔아치운 반면, 개인은 무려 8조5505억원을 사들이며 지수 하락을 지지했다.

지난해부터 개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침체에 빠졌던 국내 증시에서 버팀목 역할을 해왔

다. 다만 코스피가 최근 조정장을 연출하면서 개인투자자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에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개미들의 '빚투(빚내서 투자)'가 대표적인 예다.

증시 열기와 비례해 치솟고 있는 신용거래용자는 12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총 20조7871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의 강한 수요세에도 코스피가 장중 큰 폭의 등락을 보이는 것은 반대세력 또한 존재한다는 의미다. 현재 외국인·기관의 매도세는 증시 부담이다. 실제 '공포 지수'라고도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11일 기준 전 거래일 대비 22.17% 상승한 35.65로 지난해 6월18일(37.30) 이후 최대치였다. 공매도 대기 물량 등을 의미하는 대차거래 잔액도 47조1572억원으로 높은 수준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지난해 적극적인 투자 행렬을 보이면서 추락하던 우리 증시를 되살려낸 일등 공신이다. 또 외국인과의 연금에 맞서는 또 하나의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변동성이 극대화된 시장에서는 누구도 쉽사리 바닥을 가능하기 어렵다. 개미들이 '빚투' 행진을 멈춰야 하는 이유다. /jji208@

# KT, eK리그 후원... '보는 게임' 키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국제 스포츠 경기들이 개최에 차질을 빚으며, 디지털 공간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e스포츠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도 e스포츠의 정식 종목화를 위한 연구에 착수하는 등 e스포츠가 '보는 콘텐츠'로서 가치를 인정 받으며 관련 산업 또한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추세다.

KT는 이 같은 e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프로축구연맹과 한국e스포츠협회가 주최하고 아프리카TV가 주관하는 'eK리그 2020'의 공식 후원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eK리그 2020은 온라인 축구 게임 '피파 온라인 4'를 기반으로 참가자들이 K리그의 22개 구단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우승을 놓고 경쟁하는 e스포츠 대회다. 아프리카TV

가 단독으로 중계하고 있는 이번 대회는 국내 e스포츠 대회 중 최초로 국제축구연맹의 인증을 받았다.

오는 16일 벌어지는 최종 결승전은 올레 tv 뷰플레이에서 IPTV 단독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KT는 이번 eK리그 2020의 타이틀 스폰서십을 통해 eK리그 경기 방송 내 광고와 경기장 설치물, 아프리카 TV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e스포츠 마니아들을 공략한 올레 tv 뷰플레이 마케팅을 전개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

**오늘의 운세** 1월 15일 (음 12월 3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사고는 예기치 않고 찾아오니 늘 주의가 요구된다. **48년생** 작은 일이 확정되니 헛살이 크게 비친다. **60년생** 사건 두지 말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72년생** 귀한 기운이 은은하게 가득하다. **84년생** 차량안전에 유의.
- 37년생**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 **49년생** 새 소식이 문전에 와있다. **61년생** 자녀 일로 신경이 쓰이나 점점 지나 해결된다. **73년생** 감정 기복이 심한 자신을 탓하라. **85년생** 좀 더 사색하여 말하면 좋을 듯.
- 38년생** 서쪽으로 가서 다투지 않도록. **50년생** 검은 옷을 입을 일이 지인 소식에 상복 수이다. **62년생** 제3자의 모략으로 구설 생김니 오늘은 외출 자중. **74년생** 승진하게 되니 만사형통. **86년생** 연인과의 갈등으로 종일 짜증.
- 39년생** 여행 중에 먹는 것으로 주의할 것. **51년생** 한평생 믿던 사람 등 돌리니 허무. **63년생** 푸른색이 행운을 줄 것이다. **75년생** 로또가 되려면 복권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87년생** 결연은 결을수록 질병은 완치된다 했다.
- 40년생** 공부는 평행하라 했으니 도전. **52년생** 상상력으로 용두사미 현실을 직시하라. **64년생** 핸드폰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 것. **76년생** 가난뱅이에게 아첨하는 인간은 없으니 저급하라. **88년생** 비교는 소통 부재가 아니겠는가.
- 41년생** 오늘 1과 6이 행운을 가져올 것. **53년생**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고 비밀만 새 나간다. **65년생** 기다렸던 소식이 드디어 오니 운세가 좋아진다. **77년생**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다. **89년생** 일신이 피곤한데 출장소식이다.
- 42년생** 지나친 자존심은 불리. **54년생** 자식에게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도록. **66년생** 화를 참기보다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발산해보라. **78년생** 시기 질투는 일생 도움 되지 않는다. **90년생** 자칫 숫자 적는 것의 실수로 문제가 생긴다.
- 43년생**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부딪치고 몰두하라. **55년생** 좋은 환경으로 이사할 수. **67년생** 외출할 때 도둑 수가 있으니 문단속을 잘하라. **79년생** 새로운 창업에 장인이 힘을 실어준다. **91년생** 모임에 참석해 다투지 마라.
- 44년생** 식욕이 늘어나니 기쁘다. **56년생** 동남쪽에서 귀인이 온다. **68년생** 막혔던 금전 운세가 호전되어 감사한 날. **80년생** 부모의 돈이라도 공공에는 마음을 비우라. **92년생** 칭찬을 들으면서 일을 하니 업무속도가 부쩍 증대된다.
- 45년생** 과거의 베푼 공이 전환되어 길하다. **57년생** 서북쪽에서 귀인이 온다. **69년생** 채권 관계가 잘 성립되지 않는다. **81년생** 연인과 함께 생활할 멋진 드라이브를. **93년생** 동료 간에 힘이 없으면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다.
- 46년생** 도시 집을 사는 것이 현명한 듯. **58년생** 이비인후과 쪽의 건강을 조사해 보자. **70년생** 나갔던 목돈과 문서에 기쁨이 생긴다. **82년생**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려면 이 세 중매인을 선택해보라. **94년생** 돼지꿈 결과에 기쁨이.
- 47년생** 결과에 대해서는 담담하여지자. **59년생** 복잡할 때 절면서 생각을 가다듬어 보라. **71년생** 관제수가 따르니 가정불화 수인 듯. **83년생** 외도를 의심하지 말고 2세를 갖도록. **95년생** 보통 진리는 가까운 데 있다고 했다.



# 김상희의四季

퀘렌시아

각박하고 사는 게 너무 피곤하다고도 한다. 맞다. 세상은 거칠고 사는 건 힘들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고달프다. 몸과 마음이 지칠 때 필요한 건 휴식과 위로일 것이다.

현대인들에게 마음 편한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은 집에서는 집안 일에 실 틈이 없고 회사에서는 업무에 쫓기느라 한숨 돌리기도 힘들다. 지친 마음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위로받을 곳이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상처 가득한 마음을 편히 꺼내놓고 이야기할 곳도 드물다. 그래서 사람들이 카페를 즐겨 찾는지도 모르겠다. 가깝고 어느 곳이나 있고 모든 걸 잠시 잊고 싶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인문학자는 이렇게 몸과 마음이 지친 현대인에게 퀘렌시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퀘렌시아는 스페인에서 시작한 말이다. 투우 경기를 할 때 투우사와 싸우던 소가 잠시 쉬면서 숨을 고르는 공간을 뜻한다. 현대적으로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퀘렌시아라고 할 만한 공간을 찾기는 쉽지 않다.

필자는 현대인의 퀘렌시아로 적합한 곳이 공원 종교 공간도 있겠으나 명리상담을 생각한다. 마음을 꺼낼 수 있는 곳이다. 평소 못한 말을 마음껏 할 수 있고 상처 난 마음을 보여줄 수 있다. 누구 신경 쓰지 않고 마음을 꺼낼 수 있으니 그것 자체로도 위로가 된다.

게다가 어려운 상황을 넘어설 방안도 찾을 수 있으니 힘을 얻는다. 몸과 마음이 힘들 땐 마음 한 자락을 내놓는 상담 시간이 휴식을 주고 치유를 불러온다. 편안함이 있으니 답안도 있을 것이다.

지친 사람들에게 휴식과 위안을 주는 명리학은 현대인을 위한 퀘렌시아라고 부를만 하다.

'김상희의 세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토쿠365** 신박한 학습법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토쿠는 가로 세로 4X3박스에 1부터 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토쿠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BTS Kpop Kings 방탄소년단 케이팝 킹스** 별첨 브라운 저 | epress | 15,000원

6	3	9	B	1	4	7	5
7	1	B	2	A	5	9	3
5	8	C	3	6	1	9	
A	6	9	4	C	3	8	B
1	C	2	B	A	5	6	
3		9	7	C	1	A	
C	2	6	7	A			1
	A	6	3	C	B	7	9
9	8	5	4	C	A	6	3
	B	1	9	6	A	2	C
9	5	4	C	2	8	1	6
7	C	6	5	B	9	1	8

**정답**

8	7	1	6	8	5	9	7	9	7	9
7	5	8	9	1	8	2	7	7	9	9
7	9	7	9	6	7	1	8	8	8	8
8	9	7	2	7	1	9	1	8	6	6
6	7	2	8	8	2	9	9	9	1	1
1	8	7	9	7	6	7	1	8	9	7
7	1	7	2	7	9	7	6	8	9	8
9	8	8	7	2	7	2	1	7	6	9
8	7	6	1	7	7	9	7	2	8	8
9	7	8	6	9	7	2	8	1	7	7
7	9	7	7	1	8	8	6	8	8	7

새로운 고난이도의 워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정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61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716호	